



글쓰기와 두려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계기는 의외로 많지 않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자신과 실제 자신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 계기들은 인간에게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준다. 글쓰기는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과의 대면을 시도하는 용감한 행위이기도 하다.

글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언제나 글쓰기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독자에 대한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과의 문제가 보다 근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선정의 문제, 독서의 문제, 이론과 지식의 문제, 경험의 문제 등. 어떤 것도 고민되지 않는 것이 없다.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어떻게 글을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구성을 하더라도 어떤 참고문헌을 사용할 지,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과정에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막연한 지가 폭로된다.

글쓰기는 단지 아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접 체험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한다. “쓰는 것”은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을 재구성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준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몰랐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더 깊이 알게 되기도 한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준

소진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에 체험하고 배운 것을 체화시키고 그 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글로 생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깊은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얕은 문제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보편적인 사랑으로는 구체적인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랑의 사례를 모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 사랑이란 복수(複數)의 사람들이 하는 감정이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객관적인 글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언어화된 분석과 실제 사랑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글쓰기의 대상과 나 사이에 미묘한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글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대상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즉 성급한 보편화의 폭력을 피하게 해준다는 점과 독자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글쓰기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 표현하는, 즉 보편화를 시도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보편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보편화시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대상들을 한 가지 속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대상의 나머지 속성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만약 글쓴이가 대상의 나머지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속성만으로 대상들을 분류한다면 예민한 독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편화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대상을 해석하는 타당한 도구들을 고안해낼 수 있다. 얕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주의 것들만을 쓸 수 있게 된다. 대상을 보편화하기 어렵고,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의 해석이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해석의 도구를 정밀하게 만들고, 그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타당한 해석의 하나로 자신의 글을 독자에게 드러낼 때, 독자들은 오히려 글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워진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글쓰기의 첫걸음이다.

글쓰기는 왜 두려운가? 그것은 모든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자신도 대상도 지식도 독자도 잘 모르겠다는 경험, 그것이 글쓰기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역시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글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식은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명료하게 느껴지고, 대상 역시 분명하게 인지되는 것 같다. 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를 켜거나 펜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글쓰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글을 쓰는, 혹은 글을 앞으로 쓸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비평에는 익숙할지언정 자신의 글의 한계에 마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글을 쓰면서 자각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 두렵고, 그 이상의 문제를 독자들이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글을 쓰거나 어려운 이론서들의 개념들로 자신의 특수한 언어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흥미를 유발하는 글은 일반적인 지식이 반복되는 글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그 특수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글들이다. 그렇다면 글쓰기의 막연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는 것이야말로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